

살아야 한다! 비상구, 돌파구를 찾아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10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9월 28, 30일 야외영화제 “공포와 섹슈얼리티” 백주년 기념관

9월 29일 취업간담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 취업피담” 논지당

10월 1일 강연회 “여성신규실업의 현황과 대응책” 상별B103

9월 29일 - 10월 1일 “ IMF천막” 민주광장

1. 여대생 신규 실업에 관한 문화 행사 기획 의도

지겨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그래도 주위의 몇 명은 진로를 결정하여 사회로 향하는 첫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올해는 정말 없더군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것을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실감할 수 있는 요즈음입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곳에서 여러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실업사태는 확실히 개개인들만의 문제로 돌려질 수 없는 커다란 구조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연세에서 살아가는 여성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바는 조금은 다른 면입니다. 바로 이러한 발언들 속에 ‘여성의 노동’에 관한 문제가 언제 한 번 심각하게 제기되고 대책이 논의된 적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원하는 경우 사회의 반응이란 호황일 때에나 ‘그래, 여자들도 조금은 쓸모가 있는 법이지’식의 거만한 자선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조금만 돌리면 바깥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일해온 여성들에게 사회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들의 아버지이거나 남편인 사람들을 좀 더 위로해주지 못한다고, 좀 더 기 살려주지 못한다고 욕박을 지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여러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확인 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는 직업은 특히 심리적으로 독립적인 자신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가부장제 사회는 대뜸 ‘가정에서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나, 그 일을 통해서도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며 위로해 주는 척 한 마디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정의 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왜 가사노동은 정당하게 돈으로 환산되어 보상이 주어지는 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 연세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을, 하고 싶은 열정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거창한 여성운동의 구호가 이런 바램들과 떨어져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우리들의 주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준비한 행사가 행사 자체만으로 우리들의 길을 훤히하게 다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함께 주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들의 자신감은 길들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구체적인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함께 용기와 희망을 만들어 나가 봅시다.

2. 각 행사 소개

1) IMF 천막 (9월 29일 - 10월 1일, 민주광장)

취업이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막상 취업의 문제에 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 답답해 하고 있지만은 않은지...

그 답답함들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여성취업의 문제가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느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구체적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봐요.

“우리도 일하고 싶다!”- 가상 취업원서 쓰기

“취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갖자!”- 한국여성민우회 발간 취업수첩 판매

“실업대책을 수립 해라!”- 항의 엽서 쓰기

“이런 건 어때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고실업 시대 여성경제력 창출을 위한 여성모임 FREeWAR

“여성의 현실을 보자”- 다큐멘터리 비디오 상영

2) 취업간담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 취업괴담” (9월 29일, 논지당)

경제위기 운운하는 말들이 요즘 들어 부쩍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새삼스럽게도 앓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분명히 IMF이전에 여성들에게 가능할 수 있었던 취업의 문들은 이제 바랄 수도 없는 정도로 좁아져만 가고, 그뿐 아니라 여성 우선해고가 당연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엄연히 또 다른 현실로 다가온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직업을 선택한 성공한 여성의 무용담이 아니라 현실을 아는 것, 구체적인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연세대학교 내에서 있어왔던 여학생처 주최의 취업간담회는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리라’라는, 성공한 여성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즉 여성들의 취업 문제가 남성들과 다르게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개인적인 자아실현의 문제로 인식이 되어오면서 각자 학점과 영어에 신경 쓰는 걸로 해결이 가능한 듯 생각되었으나 지금의 현실은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현실에 바탕한 용기만이 이 힘든 시간이 지치지 않게 버티어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아래 이번 취업간담회는 다양한 직업군에 진출하신 선배님들을 모셔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오시는 분 : 방정림(케이블 T.V PD), 문현숙(출판업), 오지현(디자이너), 이상아(간호사), 정정애(카페 ‘고마’ 창업)

3)강연회

IMF로 대변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의 논리는 집요하게도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꾸어야 할지 모르는 채, 또는 간직해 온 꿈을 실현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이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지금 당신이 당신을 예비(여성)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당신은 또한 예비 실업자임이 거의 분명하다고 감히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취업과 함께 실업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만약 당신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꼴이며, 현실을 눈감아 버리는 환상그리기에 불과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일자리 하나 보장받지 못하는 신규 실업자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현실의 냉혹함에 마음이 쓰리겠지만, 언제까지나 개인의 문제로 돌려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해 억지로 낙관적으로 보려고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전망을 세울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감각이란 ‘그냥 열심히 준비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사상누각(沙上樓閣)적인 생각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사회의 문제로 돌려 개인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조롱하는 그런 자세도 아니며,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고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자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그 안에서 사고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민우회에 모아진 실례들은

그러한 고민들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 강력한 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연회가 냉혹하지만 또한 위안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즉, 객관적인 현실은 분명 암울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문제임이 즉,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부각됨으로써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4) 야외영화제 “공포와 섹슈얼리티” (9월 28일, 10월 1일, 백주년기념관 앞)

공포와 섹슈얼리티 영화제

초기 공포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대략 두 갈래로 첨예화되었다.

한 축은 그저 저속하고 속물적이며, 지저분하고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것을 보는 행위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기성 관객층과 그런 비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좀더 자극적이고 으시시하고 씹직한 공포영화를 보기 위해 일주일간의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집어던지고, 주말마다 팝콘을 싸들고 친구들과 극장에 모여 밤을 새는 젊은 관객층들로 나뉜 것이다.

굳이, 영화사를 훑지 않더라도 만일 당신이 온 가족이 오붓하게 TV앞에 모인 어느 화평한 일요일 저녁에 난데없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공포영화를 비디오테크에 쏘는다면, 그 행위 자체가 가족들에게 불러 일으키는 공포감은 거의 테러에 가까운 수준일 것이다.

그만큼 공포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이중적이다.

한편에는 악몽보다 끔찍하고, 현실보다 처절한 공포를 본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피하고만 싶어지는 낮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현실에서 비롯되는 온갖 긴장과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보다 화끈하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풀고 싶어지는, 은밀한 매혹에 대한 추구가 있다.

오히려, 은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도 모르는 세계에 빨려드는 긴장감에 대한 매혹은 공포영화가 가장 잘 이용하는 판타지의 두가지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판타지의 두 측면은 우리가 현실의 긴장을 풀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 행위의 일반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포영화만이 갖는 매력, 더군다나 공포영화가 유독 열광적인 젊은 관객층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포영화의 카니발적(축제적)인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록키호러 픽처쇼에 몰려든 켈트 관객’을 보기 위해 태평양을 건널 필요까지는 없다. 꼭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러야지만 밤자리를 편안히 할 수 있던 어릴 적 ‘전설의 고향’의 체험이나, 부모님이 놀러가고 없는 친구집에 모였을 때, 혹은 MT에 간 친구들이 모두 술에 골아 떨어지고 단지 호기심어린 몇몇의 눈동자가 굴러 다닐 때, 반드시 공포영화를 봐야하거나 온갖 괴담을 털어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뭔가 빠진듯한,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그것은 공포영화의 카니발적인 측면과는 땄래야 땄 수 없는, 오히려 카니발성을 가장 강력하게 지탱해 준다 할 수 있는, 뭐니뭐니해도 공포영화가 가장 잘 써먹는 서사방식중의 하나인 억압된 것의 과잉과 귀환테제를 빼놓았기 때문이다.

이 테제속에서 인류가 억압해 온 모든 것들은 억압이 가져온 공포를 상기시키며, 역으로 더욱 초월적이고, 극단적인 공포의 방식으로 억압에 대한 가공할 복수극을 전개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사회에서 억압된 여성의 달랠길 없는 원혼은 여러 가지 한을 품은 귀신들로, 혹은 현실에서 갖지 못한 권력보다 더 초월적이고 강력한 힘을 얻은 둔갑한 여우들로 형태를 바꿔 기존 질서가 부장제 도처에 출몰하며 이를 교란시켜 왔다.

억압된 것 자체이면서 동시에 가장 활발한 복수극의 활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섹슈얼리티다.

달리말해 섹슈얼리티는 억압된 모든 것들의 괴물스러움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그것이 억압된 정도만큼)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처녀귀신이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적인 남성에게 두려운 것은 이 귀신이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유혹해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며, 구미호의 꼬리가 아홉 개나 되는 것은 여성이 헤게모니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이 그만큼이나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통렬한 복수와 축제의 한마당에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사람들은 부디 식칼대신에 팍콘을 싸들고 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시기를...

현실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없다고.....

9월 28일(월) 백주년 기념관 앞, 늦은 7시부터 연속 상영

「샤이닝 Shining」 스탠리 큐브릭 감독

스탠리 큐브릭의 걸작.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소시민이 한편으로는 가족의 미래에 대한 청운의 꿈을 부풀리며,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생계의 해결(아버지가 변변찮은 작가 지망생이다)을 위해 유령이 깃든 호텔의 관리인으로 뭉게 되는 일주일 간의 기록.

영화는 공포영화의 가장 상식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답게 여성과 아동의 억압과 학살에 기초한 미국 중산층 가족질서와 그런 가족주의에 근간한 아메리칸 드림(영화에서는 유령호텔로 설정된)의 허구적인 신화와 맹목적인 광기를 공격하고 해체한다. 모든 탈출 가능한 수단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순간들의 불안감. 한마디로 미국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치 다이어마이트의 심지가 타 들어가는 순간과 같은 긴장감의 창출과 압축적인 극의 전개를 통해 보여주는 영화.

「씨리얼 맘 Serial Mom」 John Waters 감독, 1994, 90분

공포영화는 무서워서 못보겠다는 분들을 위한 영화. 아무런 문제없는 평화롭고 화목한 한 중산층 가정의 딸 그대로 멀쩡한 아줌마가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주부에게 부과된 의무들에 너무나 충실한 나머지 온갖 수다스런 헤프닝과 급기야는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마는 중산층 주부의 도덕관의 혼란. 또한 이러한 행위에 열광하는 언론과 대중들. 아 이러니깐 이 현실에 대해 매우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 코믹환타지 호러무비.

선댄스 영화제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미국 인디 영화계의 거장인 존 워터스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은 80년대 미국 슬래셔 장르(레이건 시대의 보수주의를 비꼬며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보수주의에 몰들어 가던 공포영화의 가장 전형적인 변화와 불안을 대변해주던 보수적인 남성 사이코에 의한 여성들에 대한 이유없는 연쇄 살인을 다루는 영화 장르)를 황당하고, 엉뚱하게 뒤집어 버린다.

주목할 것은 남성 사이코들에 의한 연쇄살인은 그토록 끔찍하고, 무섭고, 엽기적인 반면, 여성(더군다나 '엄마')에 의한 연쇄살인은 그렇게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며 축제적이라는 사실이다. 주부가 될 여성관객이라면 앞으로 가족주의 가부장제 속에서 한 가족의 엄마가 되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실히 겪게 될 것이다.

9월 30일(수) 백주년기념관 앞, 늦은 7시부터 연속 상영

「Scream 1」 웨스 크레이븐 감독, 1996.

영문학교수로 지내다가 헐리웃 B급 공포영화로 자신의 영화인생을 출발한 웨스 크레이븐(우리에게는 '나이트메어1'과 '사랑과 영혼'이 잘 알려져 있다)이 공포영화장르 자체를 공포영화로 패러디하기 시작한 영화. 영화의 시작부터 공포영화에 대한 퀴즈들로 관객들과 끊임없이 향연과도 같은 게임을 펼친다. "13일의 금요일밤에서 살인자는 누구인가?... 살인자인 나는 지금 당신의 집 앞문에 와 있나? 뒷문에 와 있나?..." 이 공포영화로 가득 메워진 퍼즐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관객들은 영화가 건네는 질문에 끊임없이 답변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공포영화를 본다는 것의 한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소리지르다가 숨쉴 겨를도 없이 진짜 살인자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살인자(죽음)는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바로 옆에 있으며, 공포영화를 많이 보아온 당신이 뻔히 짐작하는 그 누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모두가 용의자이며, 이 영화는 현실일 수도 환상일 수도 있다. 공포영화를 보는 당신은 영화

의 밖이 아닌 안(그것도 한가운데)에 있다.

그렇다고 이 영화가 그렇게 난해하고, 지적인 영화가 아닌가하고 지레 겁먹지 말기를...

「천상의 피조물들」 피터 잭슨 감독

국내에서 출시된 「데드 얼라이브」로 잘 알려진 피터 잭슨의 역작.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공포영화거장에 의해 만들어진 공포영화의 경계를 허무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전후 보수적인 영국 가부장제 이성애 질서 속에서, 숙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는 두 여성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다. 영특하고 재기발랄한 두 여성간의 사랑과 유토피아는 현실의 온갖 장애에 부딪히고, 천상의 피조물들은 자신들의 유토피아에 가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존재를 지탱하게 해준 모든 꿈과 열망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선택했고, 그것은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현실(실화)이었기에 더욱 불안하고, 두렵고,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감동적인 드라마. 만일 당신이 「데드 얼라이브」에서의 난도질의 극한까지 간 피터 잭슨을 기억한다면, 그 카니발적인 악몽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다 떨쳐버리고, 가슴의 모든 부분을 열고 이 영화를 봐야 할 것이다.

월 (28일)	화 (29일)	수 (30일)	목 (1일)
	IMF 천막 (10시-5시) 민주광장		
		제3차 여성노동자 고용 안정 및 실업대책 촉구 를 위한 결의대회 장소 : 국민회의 당사 앞 시간 : 늦은 3시	
야외영화제 “공포&Sexuality” 「Shining」 - 스탠리 큐브릭 「Serial Mom」 - 존 위터스 장소 : 백주년 앞 시간 : 늦은 7시부터	취업간담회 “환상 속에 그대가 있 다 - 취업피담” 장소 : 논지당 시간 : 늦은 6시	야외영화제 “공포와 Sexuality” 「Scream I」 - 웨스 크레이븐 「천상의 피조물들」 - 피터잭슨 장소 : 백주년 앞 시간 : 늦은 7시부터	강연회 “” 강연자 : 한국여성민우 회 장소 : 상대별관 B103 호 시간 : 늦은 6시